



원로와의 대담

세계적 수학권위자 李林學 박사

본지가 4년동안 연재해온 「元老와의 대담」은 이번 12월호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1명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해온 대담형식을 바꿔 이번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수학자로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명예교수이며 캐나다 왕립협회 회원인 李林學박사를 4명의 교수가 함께 만나보았다.

〈그룹대담〉

주진구 : 충남대 교수 / 대한수학회 회장 권경환 : 포항공대 교수
고영소 : 서울대 교수 이정림 : 포항공대 교수

기발한 첫 論文 쓰레기더미 資料 인연

■ 주진구 : 이임학박사님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수학의 근원을 알아보고, 현대수학이 도입될 때의 수학 교육, 연구의 배경과 환경, 또 이박사님의 학문적 업적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대담은 한국에 있는 후배 수학자들에게 50여년 전 우리가 수학을 어떻게 시작하여 현재에 와 있는가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일로 여겨집니다.

J. Dieudonné의 저서 「A Panorama of Pure Mathematics」에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 이론에 근원적으로 공헌한 21명의 큰 수학자들 사이에 이임

학박사님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비롯한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어렸을 때 전기모터 만들어

■ 이임학 : 어렸을 때 뭘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중학교때 철관을 가위로 자르고 코일을 감고 해서 전기 모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망원경도 만들어 봤고 이것 저것 만드는 것에 상당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학은 잘했다는 것 뿐이고, 학교 수학시간에 선생님이 물으면 나는 손을 들고 대답하지는 않고 우물우물 했지만 답

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내가 수학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학을 잘 했지만 장차 수학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때 나는 수학자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지요.

나는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들어가서는 동경제대를 갓 졸업한 물리학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수학을 몹시 좋아하셨는데 내가 수학을 잘해서 나를 참 아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사영기하, 집합론, 군론, 갈로아이론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고 책도 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수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

시 경성제국대학에는 수학과가 없어서 물리학과에 들어갔는데 물리학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 주진구 :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 이임학 : 학부때 수학은 거의 독자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노(宇野)교수가 타원함수에 대해 강의했는데 나는 그 강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일제의 식민정책 때문에 대학 전체에 대하여 반감을 가졌었습니다. 예과때 물리학 선생 덕분에 수학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알았고 수학의 웬만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 고영소 : 이선생님께서 언제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셨으며 부임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 이임학 : 당시 수학회에서 투표로서 김지정, 유충호, 나를 뽑아 서울대에서 강의하기로 정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긴 했지만 몇달 후에 국대안 반대로 서울대에서 나왔습니다.

■ 고영소 : 이선생님이 사임하고 나오신 후, 그 당시 서울대에는 어떤 분들이 계셨습니까?

■ 이임학 : 내가 서울대에서 사임한 후에 동경제대를 졸업한 최윤식선생이 광산전문학교에서 서울대로 1946년인가 부임하였습니다. 그 후 나는 휘문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서울대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다시 서울대로 돌아갔지요.

■ 주진구 : 이선생님을 비롯하여 김지정, 유충호선생이 가르친 과목은 무엇이었습니까?

■ 이임학 : 나는 독일어로 된 책 Van der Waerden의 「Algebra」를 강의했고 김지정씨는 아마 「해석학」, 유충호씨는 「미분기하」를 강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주진구 : 선생님의 첫 논문에 대하여 이정림선생님으로부터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놀랐다가보다는 경이로웠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첫 논문에 대하여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M. Zorn의 미해결 문제 풀이

■ 이임학 : 1947년이던가. 그때 대학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싸움에만 바쁘고 학문과 대학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대문시장을 지나는데 길가에 종이, 책 등 쓰레기더미를 무심코 보게 되었는데 「Bulletin of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라는(1947년)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와서 펼쳐보니 M. Zorn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결과에서 중요한데 잘 모르겠다는 내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금방 해결되더군요. 그 내용을 논문으로 써서 M. Zorn에게 보내면서 출판해달라고 하였지요. 그때 나는 논문을 써서 직접 잡지 편집인에게 보낼 줄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M. Zorn은 그 논문을 1948년 미국 수학회의 Bulletin에 투고하였고 그 논문이 194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첫 논문이었습니다. 당시는 읽고 참고할 학술지, 전문도서 등 연구할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연구하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 이정림 : 「Math Review」(1949)에 이박사님의 논문이 있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첫 논문이 캐나다에 게시할 때, 1954년에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권경환박사에게 물어보고 이선생님한테 알아보고는 사실인게 판명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박사님께서 1949년에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논문 제목은 「Zorn의 문제」였고 「Math Review」에 프린스턴대의 Solomon Bochner가 이 문제는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풀렸다는 평이 실린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 권경환 : 6.25동란 때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이임학 : 인민군이 서울에 쳐들어와서 피난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끊어져서 한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밤을 보내고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쌀이 없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나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들에게 「임학이 의용군에 나갔다」고 말하니 그냥 가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냥 집에 있다가 1.4후퇴 때 서울에서 트럭으로 인천에 가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그 배에는 서울대 교수, 직원과 가족들이 같이 탔습니다. 그 후 제주도에 있으니 서울대학교가 부산에서 문을 연다는 말을 듣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 고영소 : 수학회에서 연구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으신지요.

■ 이임학 :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 누군가 하는 사람이 세미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에 생각해 보니 앞으로 서울대에서 가르칠 사람을 선택하려면 서로 전공 등 여러가지를 알고 싶어서 제안한 것 같았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세미나에 참가하지 않았고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참가하였습니다.

■ 고영소 : 세미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임학 : 입문으로부터 시작하여
근론, 미분기하 등으로 기억합니다.

「미흡한 논문」 지적이 유학계기

■ 고영소 : 선생님이 캐나다 브리티
쉬 컬럼비아대학에 유학가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이임학 : 나는 그때까지도 대학에
편지를 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다음 입학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때 나는 외국에 빨리 나가 공부하고 싶었
습니다. 외국대학 사정은 전혀 몰랐어요.

나는 가끔 미국 공보원(USIS)에 가서
「Math Review」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
이 쓴 논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편
지를 했는데 장학금을 주겠다는 회신이
와서, 나는 바로 학교에 가겠다고 답장
을 보냈습니다. 그 후 워싱턴대학(시애틀
소재)에서 더 많은 장학금을 준다는
제의가 있었지만 브리티쉬 컬럼비아대
학으로 갔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한번
간다고 약속한 후에 변경한다는 것은 옳
지 않은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 주진구 : 30여년 전에 선생님 이름
이 신문에 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이 커서 캐나다 왕
립협회 회원이 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 이임학 : 나는 실패를 거듭 되풀이
한 사람입니다. 물론 논문을 몇 편 썼지
만 그것은 생각(idea)이 순간적으로 나
서 만든 논문으로서 정말 중요한 논문으
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정말 도전
하였던 것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 이정림 : 연구 생활에서 에피소드
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임학 : 나는 연구한 일이 없습니다.

■ 이정림 : 그럼 장편 논문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 이임학 : 그것은 짧은 생각이었습
니다.

■ 이정림 : 지금 가장 풀고 싶은 것
은 어떤 것입니까?

■ 이임학 : Artin의 미해결 문제입니
다. 이 문제에 아이디어가 나오면 굉장
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 주진구 :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회
의에서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에서 온
수학자를 만나 선생님이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분 표현은 이임학선생
님을 “유명한 수학자”라고 말했습니다.

■ 이정림 : 미시간대에서 McLaugh-
lin에게 이선생님에 관하여 물었더니
“이임학박사를 모르는 학교는 학교가 아
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권경환 : 서울대학교는 학교일지도
모르겠군요..(모두 웃음) 여하튼 이선생
님은 유명한 수학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 주진구 : 한국에 있는 후배 수학자
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 이임학 : 내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말이 있을까요? 얼마 전 프린스
턴고급연구소에서 학술회의가 있어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한국 수학자
중에는 잘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
면 어떤 분은 수학적인 내용은 별로 없
고 표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
테 보이기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습
니다. 수학자는 이와 정반대되는 태도를
갖고 학문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림 : 그 말씀은 진실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라는 뜻 같습니다. 이선생님
께서 참석하신 회의는 이선생님이 가르
치신 적이 있는 Larglands의 60회 생일
을 기념하기 위하여 프린스턴고급연구
소에서 갖는 모임이었습니다. Larg-
lands는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에서 이

선생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인데 이 회의
에 이선생님이 초대되어 가신 것입니다.
이임학선생님이 한국에 계셨더라면 훌
륭한 수학자를 많이 배출했으리라 생각
합니다.

■ 권경환 :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 이임학 : 학교에 매일 나가 논문을
조사하고 읽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복사해
서 읽습니다. 매일 수영도 하면서 지냈
습니다.

■ 이정림 : 이임학선생님의 논문 인
용에 관하여 조사해 보았더니 선생님의
Ree group에 관한 연구가 84년부터 94년
까지 10년간 90편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영사관서 여권회수로 귀국못해

■ 고영소 :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한국에 귀국하시지 않고 외국에 계속 계
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이임학 : 공부를 더하려고 몇년동
안 북미에서 머물고 싶었습니다. 여권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영사관 직원
말이 “당신이 한국에 돌아갈 거라고 생
각되어 여권을 없애버렸다.” 외국에서
여권을 없앤다는 것은 본인에게 치명적
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국적없는
사람으로서 영주권과 얼마 후에는 시민
권을 준 것입니다. 즉 나는 한국정부로
부터 한국시민권을 박탈당한 셈입니다.

■ 주진구 :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수
학자들이 한국에서 수학교육 및 연구를
시작하여 그 제자들이 생겼고, 또 제자
의 제자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되어
오늘의 우리 수학계가 이만큼 성장했다
고 봅니다. 선생님의 건강을 빕니다. 오
늘 오랜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임학
선생님, 권경환·이정림·고영소교수님
께 감사드립니다. ①7